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신 동 규**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영국함대 방문과 황제양위 및 ‘한일신협약’ |
| II.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 V.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 |
| III. 통감부의 대한제국 지배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대한제국기(1897.10-1910.08)의 사진그림엽서¹⁾를 소재로 그 시기에 일본에 의한 한일병탄의 전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상화되었으며, 또 일본 제국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선전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해본 것이다. 그간 대한제국기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는 역사 연구의 부수적 사진자료로서의 가치만 부각되어 온 경향이 컸다. 이것은 대한제국기 당시 정치·외교적인 사진 자료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엽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귀성, 그리고 고가의 수집 자료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포함해 일본의 선전 도구로서도 엽서가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 2A03925848).

**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1)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자 의미가 ‘그림엽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다 명확한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그림엽서’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엽서’로 약칭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본고에서 소개하는 대한제국기의 엽서는 필자가 소장한 일제침략기의 사진그림엽서 2만 8천여 점 중에 약 200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 관련 엽서는 극히 일부만 도록 등에 공개되고 있을 뿐 국내외에서 거의 공개되지 않아 전체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10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라는 희귀성과 고가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중요시되고 있어 학술적 정리·분석·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고에서 사용하는 엽서들은 한국과 일본이 발행한 것들이며, 그 크기는 대부분 140mm[±3]×90[±3]mm라는 점, 사용하는 용어나 명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엽서 원문에 따르며, ‘일한’으로 표기된 것은 ‘한일’로 변경했음을 밝혀둔다.

시기 엽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필수적인 연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엽서는 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사제엽서로 구분되며, 관제엽서는 다시 ‘통상엽서’(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엽서)와 ‘관제 사진그림엽서’로 구분되는데, 민간에서는 우편요금이 인쇄된 통상엽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제 사진그림엽서’만 존재한다.²⁾ 따라서 본고의 소재는 사진그림엽서이기 때문에 ‘관제 사진그림엽서’와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주된 대상이 된다. 우선, 세계 최초의 관제엽서는 1869년에 오스트리아 육군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자 에마누엘 헤르만(Emmanuel Hermann)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년 10월 1일에 발행했으며, 뒤를 이어 현재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에서 1870년경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때에 베를린의 사진가 알버트 슈바르츠(Arbert Schwarz) 부부가 포병부대의 사진을 엽서에 인쇄하여 고향에 보낸 것이 사진그림엽서의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엽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일본에서는 1873년 11월 19일 ‘우편엽서종이(郵便ハガキ紙)’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관제엽서(통상엽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0년 10월 1일에는 우편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어 사제엽서의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1902년 6월 18일에는 ‘만국우편연합가맹25주년’을 기념하여 6종 1세트(5전)로 최초의 ‘관제 사진그림엽서’가 제작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³⁾ 점차적으로 엽서의 본질적인 역할인 문자에 의한 정보전달 이외에 명확한 이미지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하여 전쟁 사진과 전승을 기념한 사진그림엽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가 열렸다.⁴⁾ 이렇듯 사진그림엽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었기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보이고 있으며,⁵⁾ 최근에는 각종 이미지 정보나 니시키에(錦繪)를 이용해 근대사를 분석하거나 조선말시관의 형성을 규명한 연구⁶⁾들도 추진되고 있어 연구방법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2) 관제엽서와 사제엽서의 구분 및 사진그림엽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비롯해 엽서 탄생에 대한 것은 이전의 논고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신동규(2017),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제81회 일본사학회 월례발표회』초록, 일본사학회), 여기에서는 논지의 전개를 위해 엽서 탄생의 흐름만 간단히 요약해두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논고를 참조 바람. 樋畑雪湖(1933), 『續日本郵便切手史論』, 日本郵券俱樂部, pp.8-30 ; 樋畑雪湖(1936), 『日本繪葉書思潮』, 日本郵券俱樂部, p.2 ; 世馬宏通(2004), 『漏らすメディア』, 『ユリイカ』36-5, p.13. 한편, 일본의 ‘우편엽서종이(郵便ハガキ紙)’라는 엽서는 통칭 ‘데보리하가키(手彫はがき)’라고 불린다.

3) 『官報』제5678호, 1902년 6월 15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 浦川和也(2003), 『繪葉書で朝鮮總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料적價值と内包された『目差し』』, 『朱夏』18, 세라비書房, p.40. 다만,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이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언제가 최초 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시이 진도(石井研堂)가 저술한 『改訂増補 明治事物起源』(春陽堂, 1944)의 『私製繪葉書の始』에 의하면, 1900년 10월 5일에 발행된 『今世少年』(1-9)의 부록이었던 『두 소년이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그림(二少年シヤボン球を吹く圖)』이라는 엽서를 그 효시로 보고 있으며, 아키야마 코도(秋山公道)의 『繪はがき物語』(富士短期大學, 1988, pp.10-11)에도 1900년에 발행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엽서와 황거 니쥬마시(二重橋)의 엽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 상세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신동규(2017), 앞의 논문, 참조.

6) 박진우(2013), 『니시키에(錦繪)를 통해서 본 근대전황상과 조선 말시관의 형성』, 『동북아역사논총』42, 동북아역사재단 ; 김경리(2009), 『니시키에를 통한 ‘제국일본’의 시각화』, 『한국일본어문화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화학회 ; 연민수(2013), 『錦繪에 투영된 神功皇后傳説과 韓國史像』, 『한국고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과 검토에는 조금더 세밀한 연구 시각과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소재로 삼아 여기에 이용되었던 도안 이미지들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일본이 제국주의를 선전했으며, 또 한일병탄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당위성을 어디서 찾으려 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둘째는 한일병탄이 1910년 8월 29일에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거의 병탄과 마찬가지로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엽서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엽서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희귀 엽서를 학계에 소개해본다는 점도 본고의 작은 목적임을 밝혀둔다.

II.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은 200여장의 대한제국기 관련 엽서에 대한 분류이다. 엽서의 도안과 구성 형식, 그리고 당시의 인물과 주요 사건 등에 따라 시험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7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여기에서는 관제·사제 사진그림엽서를 모두 포함해 분류하였는데, 그 분류 기준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엽서1] A형: 한국 황제폐하 즉위기념(순종황제)



[엽서2] B형: '한일신협약' 성립기념(이토와 '한일협약문')



[엽서3] C형: '동궁전하(大正天皇)' 한국행계기념



[엽서4] D형: 순종황제 순행 궁정열차 발차 시각

- ① A형, 고종·순종황제·메이지천황 등 황실 관련 인물 엽서: 고종·순종황제·메이지천황을 비롯한 양국의 황실 관련 인물의 엽서.
- ② B형, 한일 간 외교나 정치에 관한 엽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관계나 협약 및 양국 고위 관료들이 도안된 엽서, 그리고 통감부 관련 엽서를 포함한다.
- ③ C형,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 관련 엽서: 1907년 10월 16일 요시히토친왕(嘉仁親王, 후에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엽서.
- ④ D형, 순종황제의 순행 관련 엽서: 이토의 계략으로 순종황제는 1909년 1월부터 전국을 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엽서로 궁정열차의 발착시간표 엽서가 여기에 포함됨.
- ⑤ E형, 영친왕의 일본 순행 관련 엽서: 1907년 12월 이토에 의해 유학 명목으로 일본에 건너가 인질 아닌 인질로 생활하면서 일본 각지를 순행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여 발행된 엽서 및 일본에서 생활할 당시에 관련된 엽서.
- ⑥ F형, 문화적 행사나 사업 및 건축과 관련된 엽서: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각종 박람회나 문화행사 및 사업, 또는 각종 건축 및 시설의 기념행사 관련 엽서.
- ⑦ G형, 고종·순종황제 및 황실의 장의 관련 엽서: 대한제국기 이후의 시기이지만, 고종·순종황제 및 황실 관련 인물의 장의와 관련된 엽서.



[엽서5] E형: 한국황제전하
산간도행계기념(이은 황태자)



[엽서6] F형: 경성박람회
기념엽서(순종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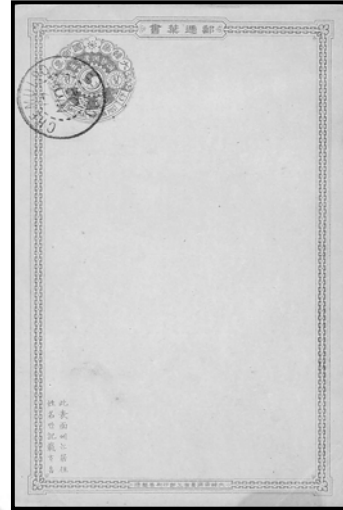


[엽서7] G형: 이태왕전하(고종황제)
국장 때의 이왕전하(순종황제)

다만, 7가지 유형의 분류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의 엽서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개의 유형이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들 7가지 분류 전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침탈과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 요시히토친왕(嘉仁親王, 일본의 동궁으로 후에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한국 방문 등과 관련된 엽서들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통감부의 대한제국 지배

우선,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검토하기 전에 대한제국 통상엽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한국 최초의 엽서는 1884년 한국 최초 우표인 문위우표가 발행되고 14년 뒤인 1900년 5월 10일에 ‘大韓帝國農商工部印刷局’에서 발행되었다([엽서8]). 그러나 일제의 한국우편업무 장악의 일환이었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합동조약의 체결로 1906년 6월 30일에 발행이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 발행되었던 엽서는 1909년 9월까지 일본 엽서와 함께 동시에 사용되었다. 대한제국 당시의 우편엽서는 국내용의 통상엽서 3종과 왕복엽서 2종, 그리고 한국우편연합(UPU) 규약에 따른 외신용 통상엽서 2종, 왕복엽서 2종 등 총 9종이며, 大韓帝國農商工部印刷局, 大韓帝國典園局, 프랑스정부 인쇄국에서 각기 인쇄되었다.⁷⁾



[엽서8] 大韓帝國農商工部印刷局
통상엽서(1전)

한편, 한국 최초의 사진그림엽서가 언제부터 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논거나 주장이 없지만, 1901년 12월 6일 『황성신문』에 옥천당 사진관 주인 후지다 쇼자부로(藤田庄三郎)가 조선의 풍속·풍경을 소재로 한 ‘畫葉書’의 발매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⁸⁾ 그 이전부터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대한제국기 공식적인 관제 사진그림엽서는 『朝鮮遞信事業沿革史』⁹⁾에 의하면, 1906년 3월 28일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착임을 기념하여 피로연의 내빈들에게 배부한 [엽서9·10]이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즉,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침탈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하였고, 외교권 박탈과 함께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제3조)함에 따라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토의 취임을 기념한 것이다. [엽서9]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 훈장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엽서10]은 이토의 그림을 도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 엽서는 제작할 당시 중앙의 여백에 이토 히로부미의 제자(題字)를 삽입해 인쇄할 예정이었지만, 여의치 못해 엽서 사용자들을 위한 통신문 전달의 용도로 남겼다고 전해진다.¹⁰⁾ 그러나 대한제국 공식적인 최초의 엽서가 대한제국의 행사가 아니라 통감이라는 식민지배자의 착임을 기념하여 선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병탄의 서막은 이미 엽서에서도 열리고 있었다.

통감의 착임기념 엽서는 사제엽서로도 발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呉服店)에서 ‘한국통감부개청기념’으로 발행한 [엽서11]이며, 이를 모사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엽서12]도 있다. 모두 경성 기념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도안과 날인인의 유형에 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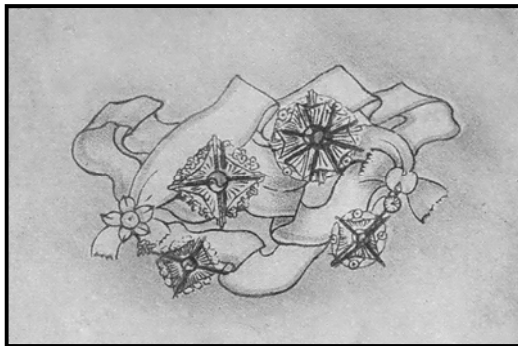
7) 한국우편엽서회(2012), 『한국우편엽서도감』, 우취문화사, p.9.

8) 권혁희(2007),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p.86.

9) 朝鮮總督府遞信局編(1938), 『朝鮮遞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遞信局, 『記念郵便繪葉書』 항목 참조.

10) 상동.

한 차이가 있다. 미쓰코시 오복점은 1905년에 서울 명동(本町)에 임시출장소를 개설¹¹⁾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의 착임과 통감부개청을 기념하여 발행한 것이지만, 한국 국내에서 일본의 사적인 일개 영업점이 통감의 초상을 사용하였다는 점, 또 대한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을 이토 초상의 하단부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토를 마치 대한제국의 지배자로 둔보이게 하려는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엽서9] 伊藤統監着任紀念 엽서
(한국·일본 최고의 훈장)



[엽서10] 伊藤統監着任紀念 엽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림)



[엽서11] 한국통감부 개청기념(이토 히로부미)



[엽서12] 한국통감부 개청기념(이토 히로부미)

이후 통감착임 및 갱송과 관련된 기념엽서는 2회를 추가하여 공식적으로 통감부에서 2종 세트로 발행하였는데([엽서13-16]), 1909년 7월 10일 초대 통감 이토와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爾荒助)의 교체, 1910년 7월 30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착임기념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부 사제엽서로도 발행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엽서의 도안 무늬로 2종 세트 중 한 곳([엽서14·15])에는 반드시 통감부의 깃발(일장기에 파란색이 우측과 하단부에 감싸고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엽서14·15·16]에 보이듯이 일본의 황실이나 최고 권력기관의 상징으로 자주 이용되는 오동나무 문양([그림1·2])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¹²⁾ 환언하자면, 통감의 착임이나 교체를 기념하여 발행한 엽서에 오동나무 문양

11) 萩森茂(1929), 『京城と仁川』, 大陸情報社, pp.93-94 ; 東洋經濟新報社編(1942), 『年刊朝鮮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p.160.

12) 오동나무 문양은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고반(小判) 등의 화폐에 새겨지기도 했으며, 이후 황실과

이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대한제국이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1] 조선총독부 徽章
(중앙의 도안이 오동나무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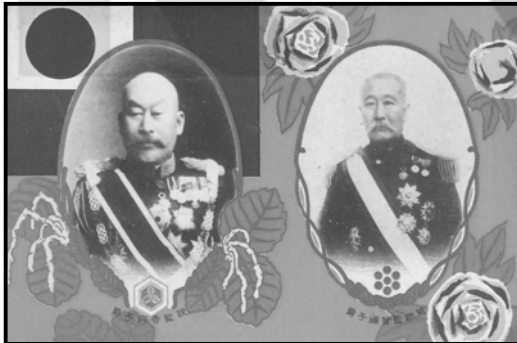
[그림2] 현재 일본국 정부(내각총리
대신)를 대표하는 紋章



[엽서13] 제2대 통감궐송-1(이토와 소네)



[엽서14] 제2대 통감궐송-2(통감가와 통감부)



[엽서15] 제3대 통감착임-1(소네와 테라우치)



[엽서16] 제3대 통감착임-2(부통감과 통감부)

물론, 식민지로의 전락, 즉 한일병탄의 서막은 통감착임 이전부터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의 3조에서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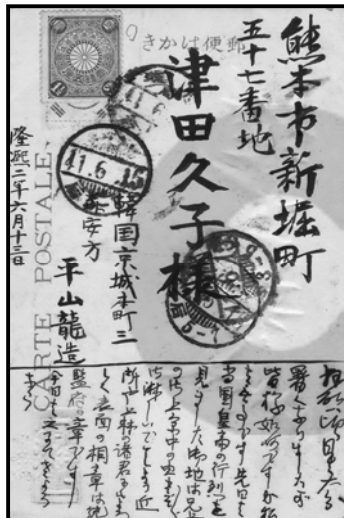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등 유명 가문이나 정치권력의 대표적 문양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오동나무 문양은 국화 문양과 함께 황실의 문양이었지만, 戰國時代에 다이묘(大名) 등의 세력이 사용하게 되자 황실에서는 국화문양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통감부, 조선총독부의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일본국 정부(내각총리대신)를 대표하는 紋章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2] 참조).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高澤等著(2008), 『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참조.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이라고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 의한 외교권 장악이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정부에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우(目賀田種太郎)는 1905년 4월 1일에 『韓國通信機關委託ニ關スル取極書』를 체결하는데, 4월 28일 일본의 관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보면, “제1조, 한국정부는 그 나라 안에서의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의 관리를 일본정부에 위탁해야 한다.”¹³⁾고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인 독립국의 통신 업무를 일본에게 강탈당한 것이다. 5월 18일부터 일본에 의한 통신기관 접수가 시작되어 7월 1일에 완료되었는데, 접수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인계위원장의 『韓國事務引繼顚末概要』에 의하면 한국통신원의 통신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 1,044명 중에 773명이 일본의 우정 당국에 의해 다시 채용되었지만, 남은 271명은 사령장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본의 통신 장악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해고되기도 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엽서17-1·2]가 있다. ‘한국통신기념회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19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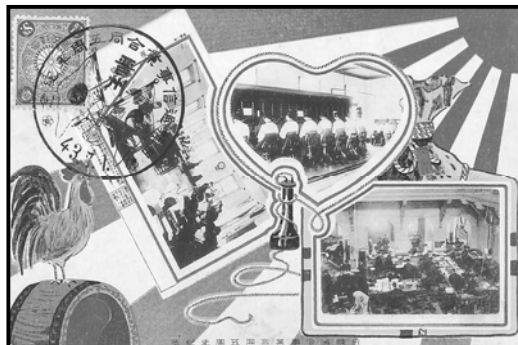


[엽서17-1] ‘한국통신기념회엽서’ 앞면



[엽서17-2] 엽서 뒷면

한국의 통신업무 장악 직후에 발행된 것인데, 엽서 뒷면 소인이 1908년 6월 15일로 1905년보다 사용 시기는 약간 늦다. 흥미로운 것은 앞면의 도안을 보면, 한반도 지도를 배경으로 철도와 우편국을 표시한 후 그 위에 빨간색의 일본 우정마크(〒)를 삽입하였는데, ‘〒’ 마크의 끝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삽입하여 양국의 통신 업무가 일본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엽서18]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1
(통감부 통신관리국, 대한제국 前 통신원)[엽서19]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2
(전화교환원과 통신관리국 업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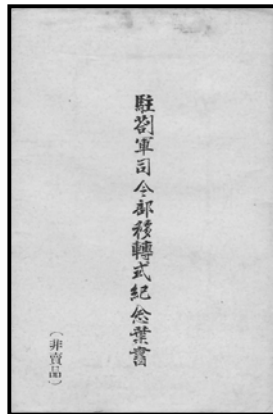
13) 『官報』제6545호, 1905년 4월 28일,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4) 藪内吉彦(2000), 『日本郵便發達史』, 明石書店, p.267.

더군다나, 제일 상단 좌측에는 일본 권력기관의 상징(통감부)으로서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통감부는 1905년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에 의해 1906년 2월 1일에 설치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엽서의 사용이 1908년이기 때문에 엽서 뒷면([엽서17-2])의 서신에 보이듯이 “며칠 전에 당국(韓國) 황제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 (엽서) 표면의 ‘桐章’(오동나무 표식)은 통감부의 ‘章’(표식)입니다.”라고 하여 통감부의 표식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엽서의 사용시기가 이미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이기 때문에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잘못 인식한 것이다. 아무튼 통감부 설치 이전에 통감부의 문양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며, 한국의 정보 통신망이 1905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이후 그 어떤 통제도 없이 일본이 자의적으로 엽서를 마음대로 발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참고로 1905년 7월 1일 일본에 의한 통신업무 장악 5주년을 기념한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우편회엽서’도 한일병탄 이전인 1910년 7월 1일에 2매 세트로 발행되고 있는데([엽서18·19]), 육일승천기의 배경하에 일본에 의해 신설된 통신관리국의 업무 모습을 도안으로 삼고 있어 일본이 한국의 통신 업무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병탄의 서막은 일본군의 한국 주차군에서도 확인된다. 주차군 사령관은 천황 직속으로 예하 각 부대를 통솔하여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창설 당시에는 공·영사관과 거류민 보호 등 치안임무 이외에 작전군의 배후에서 각종 시설의 장악이라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었다.¹⁵⁾ 원래 주차군은 1904년 3월 9일자 편성 명령에 따라 3월 20일에 도쿄에서 편성된 후, 4월 3일 현 조선호텔 부근인 大觀亭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04년 8월 29일에 경성의 ‘야마토마치(大和町)’로, 또 1908년 10월 1일에는 용산의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엽서21]이 용산으로의 ‘주차군사령부이전식기념’ 엽서이다. 한국에서 일본군이 마음대로 주둔 내지는 군영을 옮기고, 또 기념식까지 할 정도로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대

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였다.



[엽서20] 주차군사령부 이전식 기념엽서 봉투



[엽서21] 주차군사령부 이전식 기념엽서 (용산의 주차군사령부 신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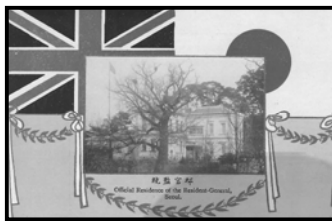
15) 일본군의 한국 주차군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국사편찬위원회편(1989), 『한민족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pp.153-158 ; 이태진(2008), 「1905년 條約의 強制時의 韓國駐劄軍의 성격」, 『한국사론』54, 서울대학교국사학과, pp.341-351.

IV. 영국함대 방문과 황제양위 및 ‘한일신협약’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지만,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06년 9월 12일에 영국사령관 무어 중장이 한국에 내항했을 때 통감부에서 이를 기념하여 발행한 3매 세트 ‘영국 지나함대 사령장관 무어 중장 환영기념(봉투의 명칭)’ 엽서이다([엽서22-24]).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엽서22]에 보이듯이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초상은 삽입하지 않은 채 무어 중장과 통감 이토의 사진만을 넣어 제작하였고, [엽서23·24]에서는 영국기·일장기 도안, 태극기·일장기 도안으로는 엽서를 제작했지만, 영국기·태극기 도안 구성의 엽서는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에 외교권이 없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엽서22] 무어중장과 이토 히로부미



[엽서23] 영국기·일장기, 통감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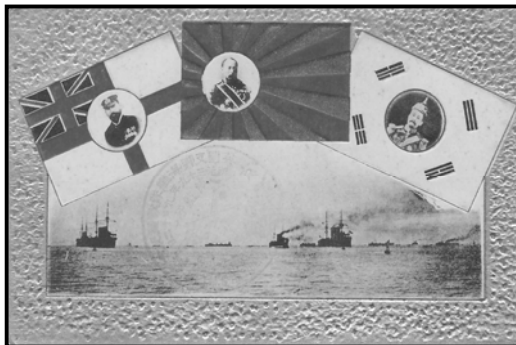
[엽서24] 태극기·일장기, 신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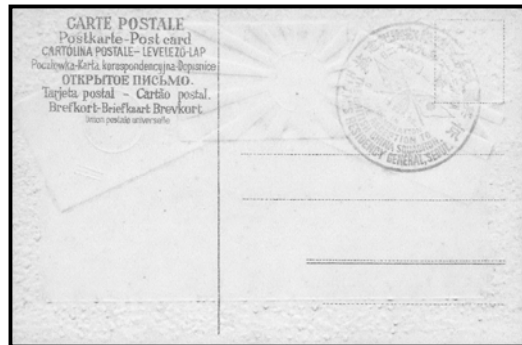
[엽서25] 영국함대의 입항, 영국해군기와 육일승천기



[엽서26] 엽서 모양에 영국기와 육일승천기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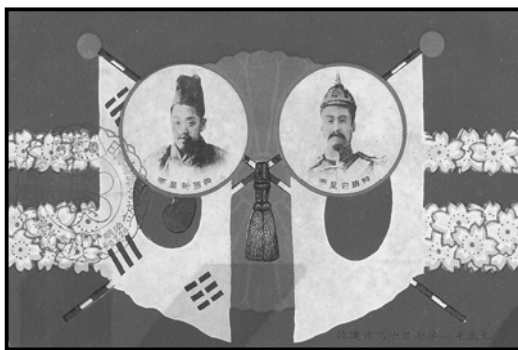


[엽서27-1] ‘무어중장환영기념’ 엽서



[엽서27-2] ‘무어중장환영기념’ 엽서 뒷면

무어 중장의 한국방문은 관제엽서 이외에 사제엽서로도 발행되었는데, ‘인천축하회’에서 발행한 2매 세트가 바로 그것이다([엽서25·26]).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과 관련된 그 어떤 도안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영국과 일본의 상징인 깃발만이 그려지고 있다. 다만, [엽서27]에서는 영국함대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습과 함께 영국기·옥일승천기·태극기 배경 안에 각기 무어 중장, 이토, 고종황제가 도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엽서는 뒷면을 보면 일본 측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UPU(만국우편연합)에서 발행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사진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엽서28] 한국황제양위기념 엽서(고종황제와 순종황제)



[엽서29] 한일신협약 성립기념 엽서(이토와 '한일협약')

이후, ‘한국황제양위와 한일신협약성립기념’이라는 엽서가 1907년 7월 24일(기념인 기준)에 발행되는데([엽서28·29]), 고종에서 순종으로의 황제양위와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또는 ‘정미칠조약’)의 체결을 기념한 것이다. 다만, 황제 양위는 친일파에 의한 협박 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한일신협약’은 치욕스런 국권 상실의 조약이었다. 즉, 1907년 7월 21일 밤에 이완용·송병준 등의 친일파들이 궁내부대신 박영효를 경무청에 가둔 후 궁궐에 난입하여 고종 황제에게 황제 양위를 협박하였고, 이에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무가 칼을 빼들고 고종 황제를 위협하여 양위가 이루어진 것이다.¹⁶⁾ 더욱이 일본에 의한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황제 양위를 기념하고 있다는 점, 또 [엽서28]에 볼 수 있듯이 태극기와 일장기를 교차·삽입하여 마치 황제양위가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듯한 인상을 부여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엽서29]에서는 통감부의 깃발과 이토의 초상, 엽서 좌측 하단에는 1907년 7월 24일 밤 이완용 내각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체결된 ‘한일신협약’의 체결문을 실어 대한제국의 군대해산 등 마치 합법적인 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었음과 동시에 초대 통감인 이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선전하고 있다. 엽서의 기념 소인이 7월 24일로 날인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엽서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7월 24일 저녁에 비밀리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에 맞추어 기념인도 날인되고 있다. 즉, 황제양위와 ‘한일신협약’은 한일병탄의 본격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요식행위와도 같았던 것이다. 강조하자면, [엽서28·29]는 기념엽서라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과를 찬양한 일종의 선전엽서

16) 정교, 『大韓季年史』, 1907년 7월 21일조.



[엽서30] '개원 및 한일신협약기념'(고종황제 · 이토 · 天照大神)

장기 · 육일승천기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대한제국과 일본이 병탄이나 된 듯한 모습을 엽서로 표상화시키고 있다. 물론, 당시 앞서 소개한 [엽서1]에 보이듯이 순수하게 순종황제 즉위를 기념한 엽서도 있지만, 당시 대한제국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그림엽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침탈을 합리화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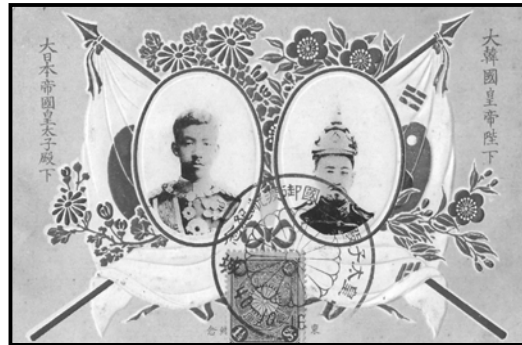
V.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

1907년 8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하여 메이지천황과 면회했을 때 그는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당시 한국은 을사늑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가 초대통감이 되었고, 일본에 의한 외교권 박탈과 함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1907년 7월에 고종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부당한 한국점령 야욕을 호소했으나 발각되어 퇴위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고 있었다. 이때 이토는 순종의 즉위를 기회로 황태자였던 이은(영친왕)을 일본에 유학시키고, 대신에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한국 내의 반일의병운동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취하였으나, 결국 이토의 설득에 따라 승낙을 하였고, 카즈라 타로(桂太郎), 토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등 육해군 대장들과 함께 군함 '카토리(香取)'([엽서31])에 승선하여 히로시마(廣島) 우지나항(宇品港)을 출발해 1907년 10월 16일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요시히토친왕의 한국방문 일정이 시작되었다.¹⁷⁾ 그런데,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영친왕을 인질로 일본에 데려오기 위한 목적 이외에 일본 제국주의 선전과 함께 나아가 병탄을 눈앞에 두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합리성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 당시에 발행된 요시히토친왕 관련 많은 사진그림엽서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도구였다.

17) 요시히토친왕의 한국방문에 대해서는 原武史(2000),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pp.120-129 ; 吉川隆久(2007), 『大正天皇』, 吉川弘文館, pp.101-105.



[엽서31] '황태자전하한국류수·시코쿠행계
어소함기념'(카토리함과 황태자)



[엽서32]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
(대한국황제폐하,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

우선 [엽서32]를 보면, '동궁전하한국어도항기념'이라는 제명의 엽서인데,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배나무 꽃과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가 각기 태극기와 일장기를 감싸고 있는 배경 위에 순종황제와 일본의 황태자의 사진을 나란히 삽입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엽서에서 천황과 황태자 레벨을 동등한 위치에 넣지 않았으며, 천황의 하단부에 천황가의 일족을 삽입하고 있었던 엽서 제작의 일반적 도안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역시 순종황제의 정치적 레벨을 황태자급으로 격하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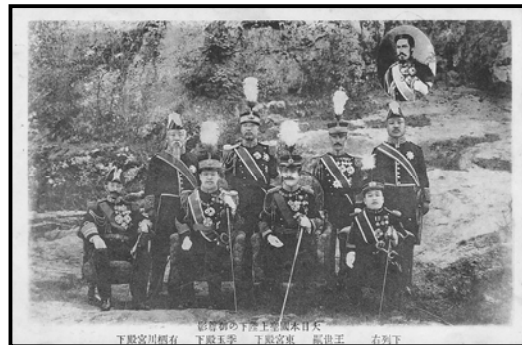
[엽서33] '동궁전하 한국행계기념'(봉투에 인쇄된 명칭,
순종황제와 황태자가 지나가는 길거리의 봉영문)



[엽서34] '동궁전하 한국행계기념'(1907년 10월
동궁이 경성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



[엽서35] '동궁전하 한국행계기념'(東郷平八郎,
남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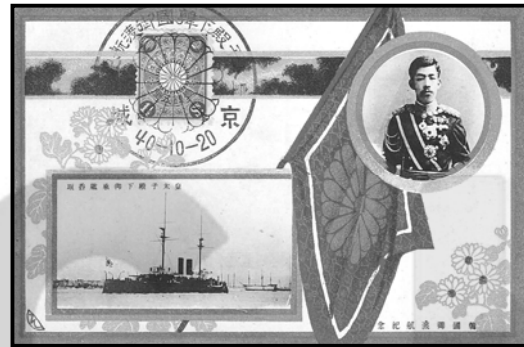


[엽서36] 원명은 '대일본국성상전하의
어존영'(순종황제, 요시히토친왕, 영친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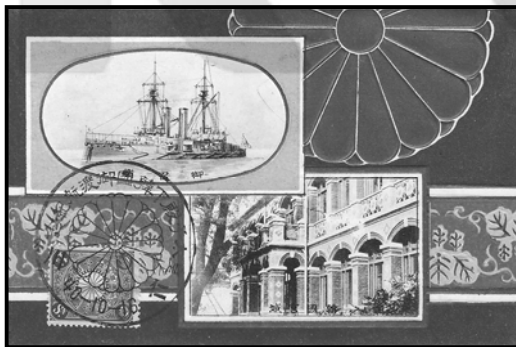
또한 인천의 청한양행에서 발행한 3매 세트의 엽서([엽서33-35])를 보면 마치 요시히토친왕이 자국을 순방한 듯한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병탄을 기정사실화해 나갔다. [엽서33]은 순종 황제의 도안을 삽입하기는 했지만, 길거리에 일장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엽서34]는 요시히토친왕이 경성에 입경하는 모습, [엽서35]는 친일단체인 일진회가 남대문 앞에 세운 환영문을 배경으로 오른쪽 위에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 대장의 사진을 삽입하고 있다. 또 10월 19일에는 비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엽서로도 만들었는데, 바로 ‘대일본국성상전하의 어존영’이라는 제명이 인쇄된 [엽서36]이다.¹⁸⁾ 제일 오른쪽 위에 메이지 천황의 초상을 편집하여 넣은 후, 그 아래에 순종황제, 요시히토친왕, 영친왕 등의 사진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메이지천황의 위상이 순종황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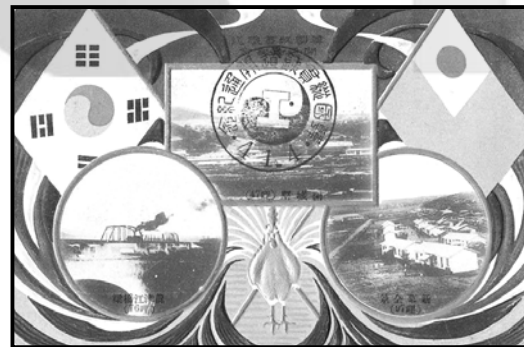
[엽서37]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
(태극기와 왜곡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



[엽서38]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
(요시히토친왕과 카토리함)



[엽서39]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 엽서



[엽서40] '한국종관철도개통기념'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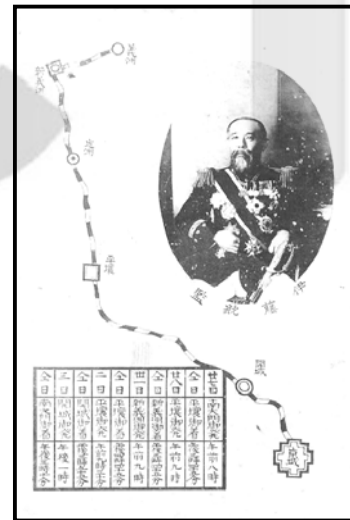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엽서37]이다. 이 엽서는 경성의 '야마토상회(大和商會)'에서 발행한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봉투의 명칭) 2매 세트([엽서37·38]) 중의 한 장인데, 바로 전설 속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이 도안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이 왜곡된 '삼한정벌'설과 오버랩 되어 한국이 단순한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

18) 칼럼니스트 송광호에 의하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총독관저라는 설도 있으며, 1907년 10월 19일에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송광호 칼럼: (13) 사라진 조선왕조 마지막 후손들의 초상』, http://book.culppy.org/bbs/board.php?bo_table=23_01&wr_id=85, 검색일:2009.03.01).

한 복속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라는 왜곡된 전설이 엽서를 통해 재현되면서 한국침탈의 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⁹⁾ [엽서39]도 마찬가지로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도항을 기념해 당시 국내에 있던 한국출판협회(뒷면에 발행처 인쇄)에서 발행한 것인데, 1907년 10월 16일의 기념인이 날인되어 있고 카토리함과 한국궁성(덕수궁 돈덕정)의 사진을 삽입하고 있다. 그런데 도안에는 일본 황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화문양이 엠보싱으로 처리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통감부를 의미하는 오동나무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강조해 말하자면, 일본의 황실과 통감부, 즉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장악되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엽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제국기에 엽서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엽서40]은 1908년에 4월에 발행된 ‘한국종관철도개통기념’ 엽서로 한국을 의미하는 닭이 하단부에 도안되어 있고, 양쪽에는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개성역, 신막전경, 용진강 교량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부산↔신의주 간의 급행열차인 隆熙號의 운행기념도 겸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종관철도’에 대한 일제의 계획은 1880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핑계로 ‘朝日暫定合同’을 반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부·경인철도의 부설권을 탈취하였고, 청일전쟁 중에 한국에서의 병참수송과 부대이동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였던 일본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수상 이토에게 『朝鮮政策上奏』(1894)를 제출하여 부산↔서울↔의주 사이의 철도를 동아시아 대륙과 인도로 통하는 루트로서 일본의 패권을 아시아에 떨칠 것을 촉구²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근거한 건설이었다. 즉, 철도건설이라는 근대화의 미명하에 아시아침략의 교두보로서 한반도에서의 건설을 계획·실천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당시의 종관철도는 대륙병참간선의 확보와 러일전쟁을 수행할 목적, 그리고 연락운수체제의 정비, 일본→한국→만주 노선에서 화물수송의 극대화²¹⁾라는 측면이 더더욱 컸었기 때문에 [엽서40]은 이러한 제국주의 침탈의 성과를 선전한 엽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엽서41]도 있는데, 경성에서 의주까지의 철도 노선을 배경으로 통감 이토의 사진을 삽입하고, 하단부에는 남대문, 개성, 평양, 의주역에서의 발착 시간을 인쇄하고 있다. 이 엽서는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양·신의주·의주·개성 등지



[엽서41] 순종황제와 이토 히로부미의 서순행 관련 엽서

19) 한일병탄과 관련하여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이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관의 근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동규, 앞의 논문, 참조.
20) 국사편찬위원회편(1989), 앞의 책, pp.488-510 ; 정재정(1984), 『京義鐵道の敷設과 日本의 韓國縱貫鐵道 支配政策』, 『논문집』3, 한국방송통신대학, 참조.
21) 이용상·정병현(2016), 『조선철도의 만철위탁 전후의 변화과정과 관련 관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19-3, 한국아시아학회, p.70 ; 정재정(2004),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pp.117-139, 참조.

를 순행한 서순행(서북순행)을 기념한 엽서로서 이 순행은 이완용과 이토의 계략으로 시행된 ‘황실이용책’이었다.²²⁾ 즉,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이 격화되던 시점에서 일본은 순종을 앞에 내세워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친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순행을 기획했던 것이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엽서는 그야말로 병탄되어가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삼아 이들 엽서에 그려진 도안의 분석을 통해 대한제국기에도 이미 1910년 한일병탄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엽서에 나타난 침탈의 합리화와 제국주의의 선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에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한일병탄의 추세가 강화되어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1904-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사진그림엽서의 붐’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엽서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병탄의 노골적 표명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도 선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언하자면, 사진그림엽서라는 것은 모리 야스히데(毛利康秀)가 언급했듯이 “엽서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매스미디어의 특성”과 “엽서의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 즉 전자는 화상정보(인쇄된 사진·그림) 전달의 수단으로서, 후자는 개인정보(사적 편지글) 전달의 수단으로서 활성화되면서 당시 최고의 정보전달 미디어였기 때문에²³⁾ 한국을 점진적으로 장악·병탄해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과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엽서를 이용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한국 통신업무 장악, 초대통감 이토의 착임기념, 일본군의 한국주차군 등의 기념엽서를 소재로 삼아 검토했으며, 이러한 점들을 한일병탄의 서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한일병탄의 본격화는 1906년 9월 영국함대 무어 중장의 한국 방문, 1907년 7월 고종과 순종의 황제양위 및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정미칠조약)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당시에 발행된 기념엽서들의 도안 분석을 통해 밝혔다. 1906년 무어 중장의 한국 방문의 경우, 한국의 영토에 방문했음에도 무어와 초대통감 이토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만이 제작되었다는 점, 태극기와 영국기가 대등한 입장에서 발행되지 않고, 오히려 영국기와 일장기가 삽입된 엽서가 발행되는 등 일본의 한국 지배를 엽서로서 표상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외국에 대해서도 이미 일본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22) 月脚達彦(2000), 「保護國期における『文明化』と抗日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伊藤博文の皇室利用策との関連で-, 『朝鮮文化研究』7,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pp.62-65; 김소영(2010), 「순종황제의 南·西巡幸과 忠君愛國論」, 『한국사학보』39, 고려사학회, 참조.

23) 신동규, 앞의 논문, 참조.

셋째, 1907년 10월에 메이지천황의 황태자 요시히토친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를 기념한 엽서들이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한일병탄의 실질화 단계로서 일본 제국주의 선전과 함께 1910년 병탄을 눈앞에 두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합리성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진그림엽서의 제작에 자의적인 도안을 이용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반면,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위상을 격하시키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허구에 불과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을 엽서 도안에 이용해 한국이 단순한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복속 대상이었다는 것을 선전하여 한국침탈을 합리화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끝으로 대한제국기 관련 사진그림엽서들 중에는 각종 기념엽서를 비롯해 황실 관련 엽서들이 상당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두 소개하지 못했다. 또, 본고에서는 순종의 서복순행과 남순행, 영친왕의 일본 순행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못한 엽서들과 함께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1989), 『한민족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권혁희(2007),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김경리(2009), 「니시키에를 통한 ‘제국일본’의 시각화」,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김소영(2010), 「순종황제의 南·西巡幸과 忠君愛國論」, 『한국사학보』39, 고려사학회.
박진우(2013), 「니시키에(錦繪)를 통해서 본 근대천황상과 조선 멸시관의 형성」, 『동북아역사논총』42, 동북아역사재단.
신동규(2017),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제81회 일본사학회 월례발표회』 초록, 일본사학회.
연민수(2013), 「錦繪에 투영된 神功皇后傳說과 韓國史像」, 『한국고대사연구』69, 한국고대사학회.
이용상·정병현(2016), 「조선철도의 만철위탁 전후의 변화과정과 관련 관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19-3, 한국아시아학회.
이태진(2008), 「1905년 條約의 強制時의 韓國駐劄軍의 성격」, 『한국사론』54, 서울대학교국사학과.
정교, 『大韓季年史』, 1907년 7월 21일조.
정재정(1984), 「京義鐵道の 敷設과 日本의 韓國縱貫鐵道 支配政策」, 『논문집』3, 한국방송통신대학.
——(2004),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우편엽서회(2012), 『한국우편엽서도감』, 우취문화사.
高澤等著(2008), 『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吉川隆久(2007), 『大正天皇』, 吉川弘文館.
東洋經濟新報社編(1942), 『年刊朝鮮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石井研堂(1944), 『改訂増補 明治事物起源』, 春陽堂.
世馬宏通(2004), 「漏らすメディア」, 『ユリイカ』36-5.
藪内吉彦(2000), 『日本郵便發達史』, 明石書店.
原武史(2000),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月脚達彦(2000), 『保護國期における『文明化』と抗日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伊藤博文の皇室利用策との関連で』, 『朝鮮文化研究』7,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朝鮮總督府遞信局編(1938), 『朝鮮遞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遞信局.

秋山公道(1988), 『繪はがき物語』, 富士短期大學.

萩森茂(1929), 『京城と仁川』, 大陸情報社.

樋畑雪湖(1933), 『續日本郵便切手史論』, 日本郵券俱樂部.

———(1936), 『日本繪葉書思潮』, 日本郵券俱樂部.

浦川和也(2003), 『繪葉書で朝鮮總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料적價值と内包された『目差し』, 『朱夏』18, せらび書房.

『官報』제5678호, 1902년 6월 15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官報』제6545호, 1905년 4월 28일,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K C I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사진그림엽서, 회엽서, 대한제국, 한일병탄, 제국주의, 선전, 고종황제, 순종황제 Picture postcard, Ehagaki, Empire of Dai Han, Korea-Japan Annexation, imperialism, Propaganda, Emperor Gojong, Emperor Sunjong
<p>The Beginning of Korea-Japan Annexation and the Propaganda of Japanese Imperialism as seen in Picture Postcards during the Empire of Dai Han</p> <p style="text-align: right;">Shin, Dong-Kyu</p> <p>The poi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Japan was explicitly declaring the invasion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propagating Japanese imperialism by using a picture postcard along with “the boom of picture postcards” around 1904to1905 of the Russo-Japanese War. Secondl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designs of memorial postcards issued at that time, the results show that the full-scale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emerged through the visit of General Moore of the British Fleet to Korea dated Sep, 1906, abdication of the Crown from Emperor Gojong to Sunjong dated Jul, 1907 and ‘The 3rd Korea-Japan Agreement’ dated July 24, 1907. For example, in the case of General Moore’s visit to Korea, although he visited Korea’s territory, it was nothing more than propagating that Japan was virtually ruling Korea in a method of issuing postcards only with a picture featuring General Moore and Resident-General Ito Hirobumi and only with the British flag and Hinomaru inserted excluding Taegeukgi. Thirdly, in October 1907, postcards commemorating the visit of Yoshihito Sinno to Korea, who was the crown Prince of Meiji, were issued in various forms and kinds indicating that it was the stage of actualization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and also aiming to propagate the rationality of Japan’s domination over Korea just ahead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in 1910. This can be seen in the method of having downgrading Empire of Dai Han, while increasing the status of Japanese imperialism by using an arbitrary design in the production of picture postcards.</p>	
필자 인적사항	<p>성명(한글): 신동규 (한자): 申東珪 (영문): Shin, Dong-Kyu</p> <p>국문제목: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p> <p>영문제목: The Beginning of Korea-Japan Annexation and the Propaganda of Japanese Imperialism as seen in Picture Postcards during the Empire of Dai Han</p> <p>소속: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p> <p>E-mail: eastasia@dau.ac.kr</p>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17. 5. 19. 심사일 : 2017. 6. 6. 심사완료일 : 2017. 6. 14.

KCS I